

국제 사료곡물 산업의 흐름과 전망

국제 곡물가 고공행진 당분간 지속예상

- 에탄올 생산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영향 -



홍 순 찬 한국사료협회 회장

1. 사료곡물 수급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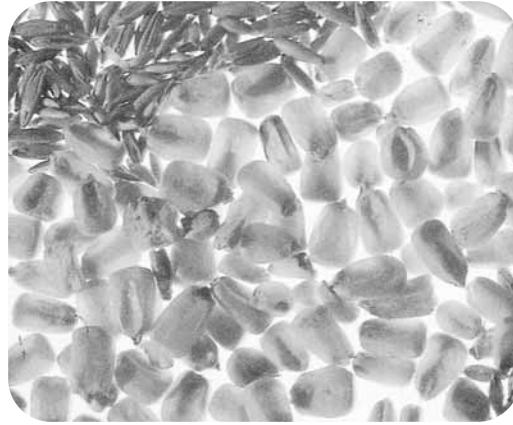
지난 10.12일 발표된 미국 농무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사료곡물 생산량은 10억 5,331만톤으로 전년도 보다 7.5%증가하고 재고량도 0.5%증가한 1억 3,533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가격형성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재고율은 11.6%로 전년도보다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옥수수의 경우는 7억 6,889만톤으로 전년대비 9.3%, 재고량은 5.1% 증가한 1억 1,036만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재고율은 전년과 동일한 12.9%로 조사되었다. 옥수수와 함께 국내 사료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두박은 1억 5,987만톤의 생산량에 재고율은 2.7%로 전망하고 있다. 소맥 생산량은 6억 47

만톤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재고율은 14.8%로 전망하고 있다.

2007/08년 양곡연도 중에 옥수수, 소맥 등 주요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생산국들의 자국내 소비량을 포함한 전체 수요량의 증가폭이 생산증가폭을 압도하고 있어 수출량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주요곡물, 특히 옥수수의 소비량 증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곡물의 수급 및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우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 옥수수 수급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가의 옥수수 공급으로 사료원료 가격

안정에 기여해 왔던 중국의 경우도 생산의 증가보다도 더 큰 수요 증가로 인해 옥수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에서도 옥수수 수출을 제한하고 에탄올 용도의 곡물사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도 생산증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자국 내 에탄올 생산증가로 인한 자국 내 수요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07/08년도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은 미국이 66%, 아르헨티나 18%, 중국 2%로 미국의 수출시장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

망되며,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할 전망이긴 하나, 재고율이 세계식량농업기구(FAO)등의 권장수준에는 못 미치는 15.8%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와 같은 재고수준에 대해 미 농무성은 향후 미국의 옥수수 경작지역의 확대와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공급량을 증대시켜 미국의 사료용 및 공업용 옥수수의 수출과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이후 수급 불안정이 예견되면서 시카고 곡물시

표1. 세계 옥수수 수급실적(USDA Report, 07.10월 발표)

(단위 : 백만톤)

구 분	공 급			수 요			기말재고
	기초재고	생 산	수 입	국 내		수 출	
				사료용	전 체		
2007/08 (전망)							
세 계	105.05	768.97	90.08	482.25	763.66	91.09	110.36
미 국	33.12	338.29	0.38	144.79	261.38	59.69	50.72
2006/07 (추정)							
세 계	122.99	703.41	88.76	471.24	721.35	91.31	105.05
미 국	49.97	267.60	0.30	142.24	230.78	53.97	33.12

표2. 옥수수의 총수요량 및 에탄올용 수요현황(미국)

(단위 : 백만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총생산량	299.9	282.3	267.6	316.5
총수요량(A)	224.7	231.7	238.1	266.5
에탄올용(B)	33.6	40.7	54.6	86.3
B/A(%)	14.9	17.5	22.9	32.3

장에서 투기적인 수요까지 가세하여 옥수수 가격은 사상 유례없는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세계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유가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1999년 이후 8년 간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이 연평균 40%이상씩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 내 에탄올 옥수수 사용량은 2006년의 경우 미국 내 옥수수의 전체 사용량의 22.9%인 55백만톤에 달하며, 2007년에는 86백만톤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공급량을 초과하는 수요량의 증가로 인해 07/08년도 미산 옥수수 재고수준은 15.8%로 지난해에 이어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옥수수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2. 해상운임(Ocean Freight)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인 곡물 수급상황 변동에 버금가는, 오히려 최근에 국내 수입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상운임이다. 최근의 수입 사료원료 가격구조를 짧게 표현하면 사료원료의 내재적 가

격은 강보합, 해상운임은 급상승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원료 가격상승의 주도적 원인이 원료가격(물건대금, FOB) 상승보다는 물류비(해상운임, Freight) 상승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료원료의 경우 해상운임이 포함된 국내항 도착도 기준가격(C&F)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있어 세계적인 선박운임료 상승은 사료의 생산비용 증가요인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제 해상운임상승의 주요원인은 중국의 팔목할 만한 성장으로 세계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선박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올림픽 개최준비에 따른 건설자재 등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임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보다 우려할 사안은 지난 십수년간과 같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국내 사료업체의 원가부담 역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보여 진다. 여기에 호주, 인도 등 세계 주요항구의 체선현상이 당초보다 장기화되면서 해상운임의 강세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목할 내용은 지난 10.12일 현재 해상운임 등락의 지표가 되는 BDI(건화물선 운임지수, Baltic Dry Index)가 그 동안 마의 벽

표3. 해상운임 동향

(단위 : 백만톤)

구 분		06.12 (A)	07.6 (B)	07.10 (C)	증 감 율(%)	
					C/A	C/B
해상운임 (\$/톤)	PNW	39.8	46.5	93.0	133.7	100.0
	GULF	52.6	72.7	113.0	114.8	57.9

으로 일컬어지던 7천 포인트를 훨씬 넘어 10,695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상당기간 해상 운임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같이 장기적인 해상운임 강세전망을 전제로 하고, 단기적 전망으로 연중 분기별 선임시황 변동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분기 중에는 주요 석탄수입국인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석탄 수출량 감소에 따라 호주 등지로 수입해야 함에 따른 톤/마일 증가, 운임선물시장 활황에 따른 고운임 선박의 수요증가, 일본의 석탄 수입량 증가, 호주 항만의 지속적 체선 현상으로 인한 선박의 공급감소 효과 등으로 해양선박운임이 강세를 보여 왔다. 3/4분기 이후에도 중국이 석탄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른 톤/마일 증가, 인도의 석탄수요 증가, 호주의 체선현상 지속 등으로 인해 前분기 대비 더욱 강세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양선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중국이 석탄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전환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국내외 석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수출환급세를 취소하는 한편 수출세 5%를 부과하는 대신 수입관세를 5%에서 1%로 인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원료가격 동향 및 전망

전술한 바와 같이 에탄올 생산에 따른 곡물 수요의 증가와 해상운임의 급등을 인해 주요 곡물인 옥수수의 가격상승은 세계 곡물시장의 특성상 사료용 소맥과 호밀, 보리, 수수 등은 물론 기타 곡물 가공부산물인 소맥피, 대두박 등의 사료용 원료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대체원료로 활용되던 열대식물성 박류원료인 팜박, 아자박 등의 가격급등까지 가세하고 있고, 유제품 생산국들의 유제품 생산마저 감소하며 사료용 대용유 등 전체적인 사료원료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산 옥수수 가격은 10월 12일 현재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선물(先物)이 가격이 금년 1월 평균 219\$/톤에서 285\$/톤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미 한국의 사료업체는 280\$/톤 이상에서 옥수수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배합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축산업과 사료산업이 지금과 같은 고비용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산규모를 통한 축산물 가격의 안정과 함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양계**

표4. 주요 원료 가격 동향

(단위 : US\$/MT)

구 분	06.1 (A)	06.7	07.1 (B)	07.7	07.10(C)	증가율(%)	
						C / A	C / B
옥수수	139.8	154.4	219.0	230.4	285.3	104.1	30.3
소 맥	132.0	159.0	212.0	313.0	424.7	221.7	100.3
대두박	267.0	248.1	289.0	351.3	430.0	61.0	48.8

(주) 옥수수, 대두박은 CBOT 가격기준, 소맥은 구매가격 기준이며 현재 공급이 전무한 상태로서 '07.10.12일 9월달 OFFER 가격임.